神通(신통)없는 깨달음은 거짓이거나 반쪽이다

불 · 법 · 승 정법 실천도량

연등사(선재불교대학) 도안 합장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충해공원 내)
☎ 055)633-6555



부처님 당시에서 지금까지 수행을 통한 神通妙力(신통묘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깨달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 깨달음의 차이를 보자면 석존 제자들이 아라한 이상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정신적인 부분과 아울러 신통묘력을 다 갖춘 것이고, 또 하나는 아랫 단계로써 정신적으로만 깨달은 것이다.

여기 신통을 증득한 조사스님(서산, 사명, 진묵, 원효, 만공, 경허 등)들의 일화를 보더라도 사천왕이나 대법천 등 대화는 물론, 하늘에서 공양을 받았다는 등 일화가 많다.

그들은 한결같이 신들과의 대화, 신들의 도움, 신통묘력을 보여 주었었다. 근데 지금은 방송이나 유튜브 등에서 말 잘하는 앵무새들만 서로 경쟁적으로 말잔치만 난립하고 있다. 체험했다고 말은 하나 증득한 바를 보여주는 이는 아예 없다.

그러니 "정신을 잃어버린 이 (조현병)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라고 물으니 정신병원에 보내어 약물치료를 해야한다고.... 그것도 공영방송에서..

또 묻습니다..

당신은 길에서 환우(조현병, 전이된 암환자, 희귀병)를 만나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직자의 신분이라면 여기에 대해 분명 얘기해야 할 것이다.

정신병원에 보낸다든지, 법력이 부족해서 외면한다든지, ...아니면 나의 수행력(법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든지....

• • •

〈사례 ❶〉

시간이 많이도 흘렀다.

소납은 학부시절 주말이면 청량리에서 강릉을 운행하는 열차(무궁화)로 태백에 있는 은사스님 절과 학부(서울 ㅇㅇ대학)를 2주에 한번정도 갔다 오곤 했다.

어느 해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학교로 귀가하기 위해 여느 때처럼 예매한 열차에 스님 일행(4名)이 몸을 실었다. 그 때가 자정 가까운 시간이다. 그러면 종착지인 청량리역에 새벽 4시 정도에 도착한다. 피서철이 끝나갈 무렵인데도 열차 안 통로까지 붐볐다(당시는 입석표도 팔았음).우리 일행들은 미리 표를 예매해 놓았기에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걸망을 제각각 벗어서 선반에 올려놓고 편한 복장으로 마주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객실 내가 소란 스럽다. 알고 보니 통로 한 가운데서 40대 중반의 한 여인이 고통을 호소하며 뒹굴고 있는 것이다. 그 때 그 일행(6名)들은 벌써 119에 연락을 해 놓았으나 그 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고, 바로 여객 전무와 공안이 쫓아와서 열차 안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을 먹이고 또 탑승객 중 누군가는 재빠르게 민간요법으로 손을 따주고 주무르는 등등.. 응급처치를 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오로지 다음 역에서 기다리는 119 밖에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런데 통로 중간에서 뒹굴고 있는 여인과 소납이 앉아있는 거리는 불과 5~6M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더군다나 성직자의 신분으로 승복을 입고 있는 자가 그 장면을 그냥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우리 일행들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기 한이 없었다.

그래 일어나자, 이 순간 불보살이 보고 계실 거다. 나의 행동을....

"나무관세음 보살"하고는 일어나 선반위에 걸망을 풀어서 108 염주를 찾으니 염주가 보이지 않는다. 사실, 그 염주는 출가 전부터 가지고 다녔던 것이다. 그런데 그 염주가 보이지 않는다. 일순간 당황하는 모습을 내 사제가 바라보면서 나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다. 사제는 태백 절에 있을 적에 환우들을 기도해 주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래, 이미 일어났으니 부닥쳐보자 하고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서 걸어 나가니 열차 안 승객들이 동시에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많이 아프냐고... 인사말을 던지자 단번에 그렇다고 하길래.. 그럼 이 환우를 의자위에 눕히시고 일행 분들은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게 둘러 서십시오. 지금부터 이 스님이 이 여인의 신체부위 어느 곳이든 손이 가도 되겠습니까? 하니 누구랄 것이 없이 동시에 좋다라고 했다. 잠시 집중을 하고는 손을 명치부분에 살포시 갖다 대고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고통이 멈추었고, 자는 듯 조용해졌다.

그렇게 약 5분정도 기도를 마치고 이젠 괜찮으니 목적지까지 편안히 가십시오~ 하며 일어나자 환우가 그 순간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뛰어가는 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 갔다오면 편안히 잘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하고는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누구랄 것도 없이 스님 법명이 무엇이며, 어느 절에 계시냐 등등.. 귀찮을 정도로 묻기 시작한다. 그 때 소납은 아직 수행중인 납자라면 훗날 공부가 완성되면 뵐 날이 있겠지요..하고는 자리로 돌아왔다. 사제가 엄지척을 보내며 환하게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 혹여 이 글을 보면서 그때 그 상황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 •

〈사례 ❷〉 위말기암 74세

큰 절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이 오랜만에 찾아 왔다. 그래서 그 동안 안부를 물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다급한 듯,

스님, 사실은 속가에 부친이 위말기암인데 전이가 되어 2달 시한부 판정을 받고 서울 ㅇㅇㅇㅇ대형 병원에서 나와 지금은 형님 집(인천)에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스님네 전 가족이 기독교인이다.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그 스님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불보살님이시여. 지금 이 순간 이 도안이 어찌해야 하는지요??

그래 또 부닥치자..나무관세음보살

스님, 스님이 보호자와 함께 부친을 바로 데려오라고 하고는 기다렸으나 이내 오지 않고 시간이 꽤 걸렸다. 왜냐고 물으니 절집에는 절대 보낼 수 없다고 한사코 고집을 피우길래 이 시간 이후 모든 것 책임지겠다고 하며 모셔오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그 때 온 날짜로 봐서는 시한부 2달에서 한 달이 이미 지났고 살 수 있는 날은 한 달이 되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렇게 해서 스님과 스님 모친, 부친 해서 셋이서 한방을 쓰게 했고, 다음 날 새벽 예불부터 환자를 제외한 모친까지 법당에 나오게 했다.

첫날 저녁 공양시간이 되어 전부 나오라고 하니 부친을 제외한 스님 4명과 모친해서 5명만 나온 것이다. 그래서 환자를 모시고 나오라고 하니 모친 왈 "아예 일어나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럼 업고 나오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모시고 와서 기댈 수 있는 곳에 기대게 했다. 그 때 그 표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다 같이 공양 계송을 하고 수저를 드는데 부친은 미동이 없다.

그 때, 수저를 드시오 몇 번을 하니 모친이 음식을 들어본지 오래됐다는 것이다. 그것도 오래전에 병원에서 우유, 죽 같은 것을....그 이후에는 주사에 의지했다고 한다.

그럼 전부 수저를 놓고 환우가 수저를 들 때까지 손을 내려놓고 있으라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부친이 조그마한 소리로 이 스님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하길래 "좋습니다. 이미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하고는 이왕 드시다 가시면 혈색도 좋을 것 아닙니까 하며 드세요를 했다.

드시다 가시면 이 스님이 49재를 정성껏 지내서 꼭 천국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 스님이 천국에 보내드릴 만한 힘(법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한입 드세요 하니 숟가락을 드는 것이다. 들었으면 밥(잡곡밥)을 뜨세요 라며 종용했다

이미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 본인 때문에 전부 손 놓고 있는 모습에 미안했던지 그제서야 밥을 뜨서 입에 넣는 것이 아닌가..

천천히 조심스레 씹는 모습을 보고 전부 공양합시다 했다. 그렇게 해서 공양을 반그릇 정도 억지로 드셨는데 다들 표정이 좋지 않다. 저녁이 되어 주무시기 전에 기도를 한번 해 주었는데 배를 보니 이미 개복을 한 흔적이 있었다. 물어보니 형제들이 고집을 피워 병원에서 동의하에 열었다가 바로 닫았다고 한다. 다음날 아침공양도 전날처럼 공양을 들게 했다. 그러고 저녁나절에 방귀와 변을 봤다. 그렇게 3일이 지나니 절 마당을 조금씩 걸어 다녔고 일주일이 지날 무렵에는 다 같이 가벼운 등산을 했었고 그때부터 생명을 살려 준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매일 절 주위에 풀을 뽑고 빗자루로 마당을 쓰는 것이다. 그렇게 은혜를 갚고 가겠다고 하신지 3주가 되어갈 때 이제 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 시간 이후 술, 담배, 커피 등등을 일체 들지 말 것을 얘기하며 각서에 서명케 했는데, 뜻밖에 감사의 편지를 내미는 것이다. 지금도 등산 때 찍은 사진과 감사의 편지를 가끔 본다.

• • •

또 다시 방송 매체에 제안합니다.

예전에 JTBC 방송에서 이영돈 PD가 "10대 점술가를 찾아서"라는 프로를 방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처럼 사주, 철학, 점, 삼재 등 무당 프로는 고사하고, 참 종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 구원, 가피를 체험할 수 있게 소문만 무성한 종교인과 방송용 성직자를 출연시켜 여기에 조현병, 말기암 & 전이된 암환자, 희귀병 등 현대 의학으로 불가능한 이들을 공개된 장소에서 생방송으로 그 법력(신통력)을 시청자들이 보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청원합니다.

※소납은 일체 비불교적인 것(사주, 철학, 삼재, 방생, 운기도, 인등, 성지순례 등등)을 하지 않으므로 이 법공양을 알리는데 제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경전에서 법공양을 최우선하라 했지만 현실은 녹녹치 않습니다. 특히, 금강경과 달마스님께서는 아무리 큰 절을 지어주고 금, 은, 보화를 갠지스강 모래수만큼 시주한다 해도, 달마스님과 양무제의 대화에서 보듯이 그것은 무공덕이라 하시면서 오로지 나의 제자들은 진리의 말이 끊어지지 않게 사주, 철학, 인등, 삼재, 등등을 멀리하고 오로지 바른 법공양만이 최상의 공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여 이 제정적인 문제를 신문사와 협의해 주신다면 소납은 계속 바른 정법을 통한 체험, 득한 사례를 계속 연재해 나가겠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이 법공양으로 인해 협박성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환우와 관련하여 거짓인지, 아닌 지는 지면에 이미 공개된 전번으로 하시면 모든 신상 및 병원까지 공개할 것이고, 이 법공양에 오류가 있다면 당당히 이 지면에 글을 쓰시든지, 방송을 타시든지 하면 그것을 보고 듣는 이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부탁 드립니다. 무조건 찾아와서 면담은 불가하오니 사전에 전화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연등사(선재불교대학) | **도 안 합장**

일부 신도님 연락처

- 010-3143-5302 [무 ○]
- 010-9707-4808 [박○○]
- 010-8291-9423 [변○○]
- 010-4807-6932 [박○○]
- 010-5699-3173 [박○○]

